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시편 118:28-29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코로나의 그늘에서도 벗어나고 있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설 명절을 보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시가 무수한 역경을 겪은 후 왕위에 오른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찬송 하면서 지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이 시를 마무리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28절).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목자 시절 야생 동물의 위협 가운데, 사울 왕의 추격을 벗어나 도망 다니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28-29절).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 주신다(7절)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알기에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며 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고백했습니다(28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은 입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올 한해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새해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 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설날 가정예배문



연세대학교 대학교회
YONSEI UNIVERSITY CHURCH

2023년 설날 가정예배

시작하는 말

설날을 맞이하여 2023년에도 온 가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찬 송

301장(통 406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옵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 도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3년 설 명절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로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흉흉한 소식들,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올려 대고 있습니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2023년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뜨겁게 사랑하고,
개인과 가정의 유익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결단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시편 118:28-29

인 도 자

28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29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 씀 나 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인 도 자

축복의 시간

서로 아래의 말을 나누며 축복합니다.

다 같 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찬 송

559장(통 305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아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 기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